



대구일보



제15815호 대표전화 (053) 7575-700

idaegu.com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단기 4357년 음력 10월 21일

“통합은 세계적 추세…늦어지면 경쟁서 밀려”

“경북 일부 ‘소지역주의’ 팽배 통합, TK 고른 발전 위한 것”

경북서부권 주민설명회, 500명 참석 속 구미서 열려 정성현 추진단장 “전국 지자체, 위기의식 똑같이 체감” 기업 이끌 규제완화·조세감면 등도 자유토론서 언급

대구경북행정통합 경북서부권 주민설명회가 20일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성현 경북도 행정통합추진단장은 “1981년 대구와 경북 분리이후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돼 인구는 매년 4만여 명, 즉 1개 군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히 대구와 경북은 그동안 국책사업과 기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출혈경쟁을 벌이고 취수원과 신공항 관련 문제로 갈등도 빚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광역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프랑스 레지옹과 일본 도쿄도 사례를 설명하고 “통합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고 각종 특례를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시도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위기의식을 똑같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이 늦어질 경우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도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해수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통합이 안 돼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통합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과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한 차선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낮아 소멸을 맞는 것보다는 스스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회에서 최철영 대구대 공법학전공 교수는 북부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의식해 우선적으로 서부권 주민들에게 질문시간을 할애했다.



20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설명회에 구미와 칠곡, 김천 등 서부권 주민 뿐만 아니라 북부권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조정찬 송실대 법학과 교수는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김재우 구미시의원의 질문에 “인구소멸에 대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미온적이었는데 최근 행정통합을 밀어주고 있어 좋은 기회”라고 답했다.

또 일부 참석자가 “삼성과 LG는 수도권에서 빼앗아 갔다”고 지적하자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떠나지 않고 또 유치하려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데 행정통합을 통한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이 하나의 답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대구경북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규모를 늘리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미래 세대에 이득을 남겨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통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통합했는데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경북 북부권이 위축되고 소멸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경북 북부권이 TK 통합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경북의 대구 흡수’를 꼽는다. 하지만 홍 시장은 통합은 TK가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경북도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시장은 20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TK 행정통합에 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 TK가 하나 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TK가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TK가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

신승남 기자

신현호 기자 shh24@idaegu.com

1950년대 문인들의 아지트, 도심캠퍼스로 탈바꿈

북성로 꽃자리다방에 2호관 개관 1회 최대 50명 수용해 강의 가능

시인 구상이 6·25 직후 전쟁의 참상을 노래한 ‘초토의 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곳이자, 1950년대 피란 문인들의 아지트가 ‘대구 도심캠퍼스’로 재탄생했다. 대구시는 20일 꽃자리다방(중구 북성로1가

17-2)에 도심캠퍼스 2호관을 개관했다. 꽃자리다방은 2021년 근대건축자산 보존·계승과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시는 이 공간을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정비와 리모델링을 거쳐 ‘도심캠퍼스 2호관’으로 조성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224㎡, 연면적 276㎡, 2층 건물이다. 1회 최대 50명 규모의 강의가 가능하다. 이날

개관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경북권 대학 총장 및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시는 도심 속 공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학생들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하다.



20일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자리잡은 도심캠퍼스 2호관(꽃자리다방)에서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신일회 계명대 총장, 지역 대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는 향후 도심캠퍼스 3호관도 마련, 늘어날 도심캠퍼스 강의실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현장 공간 특성을 활용해 학교별 특화 및 교과 교육을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호 기자 shh24@idaegu.com

전국 최초 구성, 2024년 10주년 맞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 경북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 대구정신병원
- 대구보훈병원
- 대구의료원
-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
-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 권역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전문질환센터
-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대구광역시치매센터
- 대구경북지역암센터
- 대구근로자건강센터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대구경북직업병안심센터
- 대구광역시지하센터
- 총 26개 기관 참여

공공의료에 대한 흔한 오해

공공의료는 취약계층만 위한 것이다?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공공의료란? 지역, 계층, 분야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01

협의체 참여기관 정보



02

공공보건의료 교육 일정



03

숫자로 보는 건강이야기

